『中國學』第85輯 (2023.12.31.)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5.85.17
pp.353-404. ISSN : 1229-9618

한국 언론의 중국 관련 이슈 분석 연구*
- 코로나19 시기를 중심으로

이가영**

【목 차】

1. 서론
2. 연구문제 및 분석개요
3. 구간별 분석
4. 결론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2023년 8월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 국내 6개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중국 관련 뉴스 보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키워드, 키워드 결합분석 및 이슈 분석, 감정 어휘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언론이 중국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보도한 이슈와 그에 나타난 한국 언론의 관점에 대해 살펴본다.

【키워드】 코로나19, 언론분석, 텍스트 마이닝, 이슈 분석, 감정 어휘 분석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5729)
** 이가영.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zglijiaying@naver.com)

1. 서론

한국과 중국은 정치, 사회, 경제, 안보, 역사,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1992년 한중 양국 국교가 수립된 이후, 40여 년 간 한국과 중국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며, 국내 언론은 연일 중국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최초로 시작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통칭)바이러스가 발생하고, 2020년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Pandemic) 단계로 진입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도는 급증하였다. 국내 언론은 2020년 1월부터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 전역에 '원인모를 폐렴' 혹은 '괴질'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도하였고,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바이러스의 원인과 책임론에 대한 화두가 연일 지속되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대중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우한'이라는 도시와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씌우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수경[1]이 지적하듯,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게재한 첫 사설은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유래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당시 언론은 코로나-19를 일제히 '우한 폐렴'으로 명명하며, 질병의 타자화와 중국 책임론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반감과 혐오를 드러내었다. 이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혐오는 대중들 역시 가감 없이 드러내었다. 2020년, 국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기 위한 대정부 청원에 76만 명 이상이 서명하였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댓글에서는 중국을 혐오하는 댓글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문제해결이라는 실질적 이슈보다는 감염병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과정을 통해 혐오를 발생시킨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분석개요

1) 연구문제

1) 김수경,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14권 1호, 다문화 평화연구소, 2020.

본 연구는 상술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주요 언론이 중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도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기간 동안 한국 내에서 중국과 관련하여 어떠한 담론이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드러나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와 국내에 만연한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문제를 상정하고 분석 한다.

1) 연구기간 동안 한국 언론이 중국과 관련하여 주목한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가?

2) 각 시기별로 한국의 언론이 중국과 관련하여 주목한 이슈의 변화가 있는가?

3) 코로나 발생 이후, 한국 언론이 중국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언론에 나타난 중국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4) 중국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와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2) 분석개요

(1) 자료 수집 기간 및 범위

본 연구는 위의 문제의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주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기실,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주요 일간지는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10개가 있다. 이중, 편향성을 지양하기 위하여, 보수적 경향을 보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진보적 경향을 보이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그리고 비교적 중립적이라 평가되는 한국일보의 보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국가 기간급의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보도 역시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2]한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본 연구가 진행되는 2023년 8월 말까지 약 3년 9개월을 연구시기로 설정하고, 주요 코로나19관련 이슈별로 3년 9개월의 기간을 6개의 구간으로 분류하였다. 주지하다시피,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다음 해인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본격적인 코로나19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2) Michael Worobey, "Dissecting the early COVID-19 cases in Wuhan", Science, Vol.374, 2021.

한국 언론은 코로나19의 발생 초기 코로나19가 '중국발 전염병'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와 담론을 뉴스 보도를 통해 전파되었다. 이후 국내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는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거리두기의 단계는 변화를 거듭하였다. 점차 코로나19가 일상화되면서 한국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기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해외입국자 검사 의무를 해제하고, 가장 최근인 2023년 8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이처럼 코로나가 발생하여 확산되고 점차 일상화가 되어가는 이 시기 동안, 국내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이슈의 변화만큼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생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기간을 아래와 같이 6개의 구간으로 분류한다.

<표1> 연구 대상 구간 분류

구간	주요 이슈	시작일	종료일
1	코로나19 발병 이전	2019.12.01.	2020.01.19.
2	국내 코로나19 확산	2020.01.20.	2020.11.06.
3	거리두기(5단계화) 시행	2020.11.07.	2021.10.31.
4	위드코로나	2021.11.01.	2022.09.30.
5	해외입국자 검사 의무 해제	2022.10.01.	2023.08.22.
6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2023.08.23.	2023.08.31.

(2) 자료 정제 방법 및 자료량

① 데이터 선정

본 연구는 '텍스톰(Textom)'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분석을 시도하였다. 2019년 12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 주요 6개 언론사의 뉴스 보도 중에서, '중국'을 수집 키워드로 삼아 기사의 제목, 본문, 게재일, 언론사명, URL 등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제목과 본문을 분리 정제한 이후, 제목, 본문, URL의 중복 항목을 제거하였다.

상술한 정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자료량은 총 26,870건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내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6개의 구간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구간별 국내 6개 언론사에서 보도한 신문 보도량을 수치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구간별 자료량

구간	주요 이슈	시작일	종료일	자료량
1	코로나19 발병 이전	2019.12.01.	2020.01.19.	730
2	국내 코로나19 확산	2020.01.20.	2020.11.06.	6,922
3	거리두기(5단계화) 시행	2020.11.07.	2021.10.31.	6,636
4	위드코로나	2021.11.01.	2022.09.30.	6,343
5	해외입국자 검사 의무 해제	2022.10.01.	2023.08.22.	5,992
6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2023.08.23.	2023.08.31.	247
합계				26,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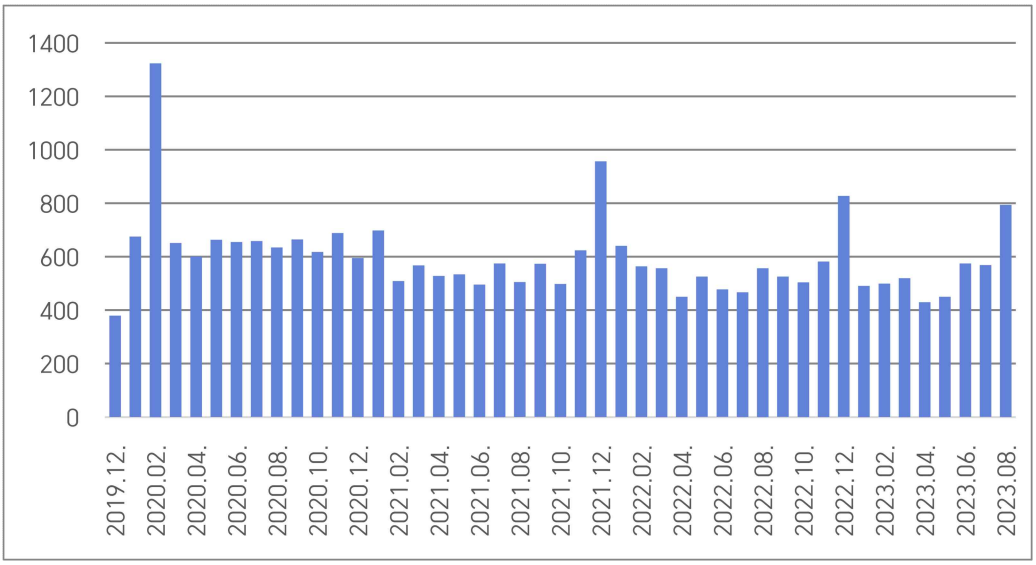
위의 표와 같이, 각 구간은 국내 코로나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구분하였기에 각 구간별 기간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 제3구간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임에 반해, 제6구간은 약 1주일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각 구간별 자료량뿐만 아니라, 월별, 일별 자료량을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연구 대상 기간의 월별 자료량의 표와 그래프이다.

<표3> 월별 자료량

월	자료량	월	자료량
2019-12	379	2021-11	624
2020-01	675	2021-12	957
2020-02	1,324	2022-01	640
2020-03	651	2022-02	564
2020-04	601	2022-03	557
2020-05	663	2022-04	450
2020-06	655	2022-05	525
2020-07	658	2022-06	477
2020-08	634	2022-07	467
2020-09	664	2022-08	557
2020-10	618	2022-09	525
2020-11	688	2022-10	504
2020-12	595	2022-11	582
2021-01	698	2022-12	827
2021-02	509	2023-01	491
2021-03	567	2023-02	499
2021-04	528	2023-03	520
2021-05	534	2023-04	430
2021-06	496	2023-05	450
2021-07	575	2023-06	574
2021-08	505	2023-07	568
2021-09	573	2023-08	794
2021-10	498		
합계			26,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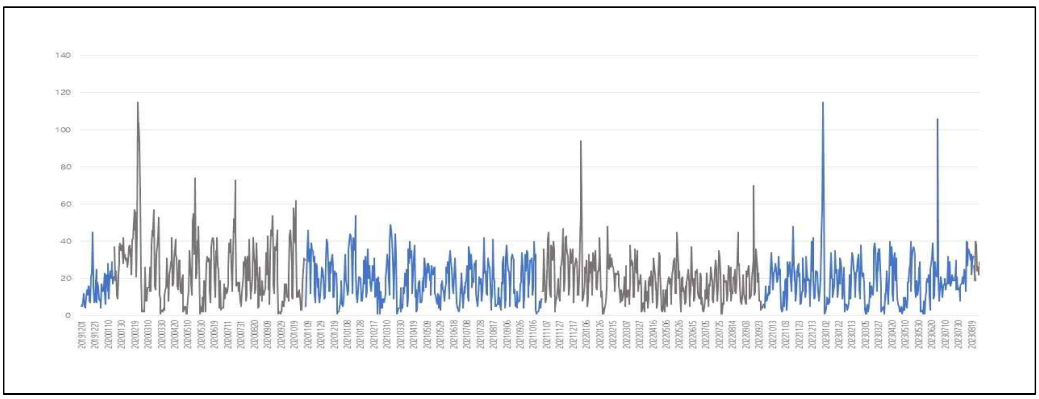
이 기간 동안 중국과 관련된 뉴스는 총 26,870건으로, 단순 계산을 통해 매달 평균 약 597건, 매일 약 19.8건의 뉴스가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별 보도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1> 월별 자료량 그래프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0년 2월과 2021년 12월, 그리고 2022년 12월, 2023년 8월에 보도량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중국' 관련 보도량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이를 일단위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그림2> 일별 자료량 그래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평균 보도량은 약19.8건이다. 그런데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1일 보도량이 평균의 3배인 60건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 일별 보도량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보도량이 있는 날은 2020년 2월 24일과 2022년 12월 30일로 총 115건의 중국 관련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023년 6월 30일에는 106건, 2020년 2월 26일에는 104건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 외에 1일 90건 이상 중국 관련 보도가 있었던 날은 2020년 2월 25일, 2021년 12월 30일, 2020년 2월 27일 등이 있다.

이처럼 보도량이 급증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과 관련한 대형 이슈의 발생이고, 두 번째는 한국 내 중국 관련 대형 담론이 발생이다. 이슈 및 담론의 생성과 보도량 간의 상관관계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② 형태소 분석

한국 언론의 중국 인식 분석을 위하여 주요 키워드에 '중국'을 포함한 기사만을 분류하였다. 데이터 자료 수집 후 데이터 정제를 진행할 때, 고유명사 및 복합명사를 결과값에 반영할 수 있는 "Espresso K" 분석 모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 조사, 전치사, 부호, 특수 문자, 일음절어를 정제하고, 조사와 어미, 부호, 외국어, 특수문자 등은 제외하였다. 특히, 조사와 어미는 독자적으로 쓰일 때 단독으로 나타내는 주요 의미는 존재하지 않으나, 주요 단어와 함께 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거하였다. 이 외에도 '있다', '없다', '않다', '아니다', '이다' 등 문법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동사를 제거하였으며, '특파원', '기자', '뉴스', '보도', '따르다', '년', '월', '일', '시', '명', '가운데' 등 뉴스 보도에 자주 등장하지만 이슈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단어를 제거하였다. 상술한 불용어 제거 후, 일반 명사(NNG), 고유명사(NNP), 의존 명사(NNB),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NNBC), 수사(NR), 대명사(NP), 동사(VV), 형용사(VA)만을 분석하여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③ 빈도 분석, word cloude, n-gram분석

본 연구는 빈도분석과 N-gram분석을 통해 각 구간별 뉴스 보도의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다. 빈도분석에서는 어떠한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 N-gram 분석의 경우에는 어떠한 단어들이 연속되어 함께 쓰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과 관련된 한국의 언론 보도들이 집중 보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빈도분석은 전체 분석 자료에서 구간별로 특정 단어가 등장한 절대적 빈도(TF, Term Frequency)를 측정하여, 출현빈도순으로 키워드를 추출하여 정렬한 것으로, 특정 단어의 절대적 등장 빈도는 각 시기별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고, 주요 이슈를 추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수행하여, 각 구간별 분석 자료에서 단어 빈도수를 시각화하였다. 워드클라우드는 단어의 빈도에 따라 글자의 크기와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TF분석을 기반으로, 단어와 단어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의 단어가 연속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N-gram 분석을 실시하였다. N-gram 분석은 연속해서 하나 이상의 음절이 등장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때문에 단어와 그 주변 단어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각 시기별 주요 이슈를 도출하는데 유용하다.

④ 이슈 분석

본 연구는 전처리를 거친 키워드 중, 출현 빈도 상위 150개의 키워드 대상으로 대표적인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인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를 사용하여 단어의 토픽 확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구간별 이슈(토픽)를 도출해내었다. 또한, 구간별로 주요 이슈를 분류하고 키워드가 주요 이슈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식별하여, 특정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의 확률을 나타내는 토픽 확률에 따라 키워드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구간별로 가장 주목된 이슈를 찾아내고, 각 이슈마다 주요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감성분석

감성분석이란 감정 상태 및 주관적 정보의 패턴을 정량화하고 이를 통해 감성과 관련된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의 한 영역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감정을 추출해내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뉴스를 작성한 언론사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각 이슈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보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뉴스라는 텍스트의 특성상,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어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Textom에서 제공하는 감성어 어휘 사전을 통해 긍정어와 부정어를 분류하고, 감성 어휘의 빈도

와 감성 강도 및 세부 감성의 비율 등을 분석함으로써, 각 구간별 자료에서 어떠한 감성 강도가 나타나며, 세부 감성의 비율을 분석하여 시각화한다. 이러한 분석은 앞에서 설정한 문제의식 중, '코로나 발생 이후, 한국 언론이 중국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며, 언론에 나타난 중국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와 '중국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와 국내에 만연한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판단된다.

3. 구간별 분석

1) 1구간 (2019년 12월 1일 ~ 2020년 1월 19일)

(1) 빈도 분석

1구간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 12월부터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20년 1월 19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 보도된 언론보도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50개의 단어를 정리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4> 1구간 출현 빈도 상위 50개 단어

순위	키워드	빈도(TF)[3]	순위	키워드	빈도(TF)
1	미국	217	26	홍콩시위	21
2	홍콩	106	27	돼지고기	19
3	일본	91	28	춘절	19
4	대만	82	29	삼성전자	19
5	북한	70	30	이란	18
6	1단계	65	31	리커창	18
7	무역합의	62	32	불법조업	18
8	트럼프	58	33	EAFF	17
9	우한폐렴	57	34	반도체	17
10	러시아	49	35	태국	16
11	무역	42	36	화웨이	15
12	관세	38	37	화장품	15
13	외교	35	38	5G	14
14	투자	35	39	인도	14

15	미세먼지	32	40	남중국해	14
16	대북제재	31	41	IT	13
17	미중무역전쟁	30	42	전기차	13
18	완화	26	43	미사일	13
19	테슬라	24	44	분쟁	13
20	베트남	23	45	농산물	12
21	중국어선	23	46	인공지능	12
22	갈등	23	47	단체관광	12
23	유커	22	48	정상회의	11
24	바이오	21	49	항공모함	11
25	사드	21	50	CES	11

이 중, 빈도수 상위 30개의 단어를 빈도수에 따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3> 1구간 출현빈도 상위 30개 단어 워드클라우드

이 기간 동안 보도된 중국 관련 신문보도는 총 730건으로, 위의 주요 키워드 빈도수(TF)를 살펴보면, '미국', '홍콩', '일본', '대만', '북한',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주요 관계국의 국가명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국내에서 보도되는 중국 관련 신문보도는 주요 관계국과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보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국 국가명을 제외하고, '1단계'가 65회, '무역합의'가 62회 언급되며 가장 이슈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우한폐렴(57회)', '무역(42회)', '관세(38회)', '외교(35회)', '투자(35회)' 순으로 높은 빈도로 확인된다. 특히, 2018년부터 2019

3) TF(Term Frequency)는 전체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출현한 절대적 빈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를 비교하여 주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년까지 이어졌던 미·중 간 무역전쟁[4]으로 인해, '1단계', '무역합의', '트럼프', '무역', '관세', '외교', '투자', '미중무역전쟁', '완화', '테슬라' 등의 키워드가 자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키워드 결합분석

이상의 주요 키워드의 결합 빈도를 살펴보면, '1단계-무역합의'의 결합단어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며, '중국-방문', '과학-기술' 등의 키워드가 그 뒤를 이었다.

<표5> 1구간 주요 키워드 결합 빈도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TF)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TF)
1	코로나19	확산	469	11	인도	국경	60
2	코로나19	확진	205	12	중국산	마스크	59
3	코로나19	백신	96	13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57
4	총영사관	폐쇄	87	14	중국인	입국	55
5	집단	감염	87	15	백신	개발	51
6	중국인	입국금지	84	16	국경	분쟁	49
7	해외	역유입	79	17	불법조업	중국어선	49
8	코로나19	대응	75	18	영유권	분쟁	38
9	코로나19	발원지	71	19	코로나19	책임	37
10	코로나19	방역	65	20	코로나19	역유입	37

먼저, '1단계-무역합의'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결합키워드이다. 미중 무역합의와 관련하여 '1단계-무역합의' 외에도, '무역합의-서명', '중국-견제', '환율-조작', '미국-농산물' 등의 결합키워드로 보도되었다. 두 번째, '중국-방문' 결합키워드는 12월 23일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중국에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등장하였으며, 이 외에도 '협력-강화' 등의 키워드가 함께 보도되었다.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12월 22일 각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송환과 관련하여, 중국 베이징의 북한 식당의 영업상황 및 인터뷰가 언론에 실리면서, '대북 제재-완화', '북한-노동자', '북한-식당' 등 결

4)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 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됐으며,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이후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진 미·중 무역전쟁은 2019년 10월 11일 양국이 무역 협상에서 부분적 합의인 미니딜을 이끌어 내면서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다.

합 키워드가 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의 시작과 함께 '원인불명-우한폐렴', '집단-발생' 등의 키워드도 상위에 랭크되었다. 다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시기여서 코로나19관련 결합 키워드 출현 빈도는 7위, 9위에 머물고 있다.

(3) 이슈분석

주요 키워드를 포함한 출현 빈도 상위 150개의 키워드를 뉴스 이슈에 따라 각 이슈별로 분류하고, 토픽 확률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6> 1구간 주요 이슈 및 토픽확률

토픽1	토픽확률	토픽2	토픽확률	토픽3	토픽확률	토픽4	토픽확률
미국	0.013	미국	0.013	대만	0.013	미국	0.009
1단계	0.09	우주	0.09	미국	0.009	홍콩	0.008
무역합의	0.009	일본	0.008	총통	0.009	시위	0.007
홍콩	0.006	협력	0.005	차이잉원	0.008	장기화	0.006
일본	0.005	방문	0.005	트럼프	0.004	방문	0.006
경기	0.004	창정	0.005	보도	0.004	특색	0.004
투자	0.003			연임	0.003	한국	0.004

첫 번째 이슈는 미중 간 무역전쟁과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이슈이다.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2019년 12월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환율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의 시행에 대한 보도는 물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는 이슈가 국내 언론을 통해 중점적으로 보도된다. 미국과 일본 EU가 미중 무역합의의 서명을 앞두고 중국의 보조금 지원과 비시장적 무역 정책에 논의하였다는 뉴스도 보도되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의 기술 발전 이슈이다.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발전과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며, 중국의 우주사업과 창청(長征) 5호 로켓의 발사, 우주정거장 건설, 전파망원경 '톈옌(天眼)'의 가동 등이 기술 발전 이슈 중 중심 뉴스로 나타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발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 자위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역시 중점적으로 보도되었다.

세 번째 이슈는 대만 총통선거 이슈이다. 2020년 1월 11일 대만 제 15대 총통선거와 관련한 이슈가 중점적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국내 언론은 미국이 양안 사이의 정

세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중국 관영매체의 관점을 여러 차례 보도함과 동시에,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대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함을 호소하고 있음이 보도 되었다. 이후, 차이잉원이 역대 최다 득표로 대만 총통의 연임에 성공하였음을 알리는 뉴스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네 번째 이슈는 홍콩시위 이슈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장기화 되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독려하였으며, 새해 첫날부터 홍콩에서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도심 행진을 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상, 1구간의 주요 이슈는 상술한 4개로 나타난다. 다만, 코로나19관련 이슈, 북한 노동자 송환 이슈,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이슈, 테슬라 공장 설립 이슈 등은 주요 이슈에 비해 보도량과 보도 중심성이 낮아 주요 이슈로 분류되지 않았다.

(4) 감성분석

1구간의 감성분석 결과, 긍정비율이 61.43%, 부정비율이 38.57%로 나타났다.

<표7> 1구간 긍부정 감성 비율

구분	빈도(건)	비율(%)
긍정	180	61.43
부정	113	38.57
합계	293	100.00

이 중 긍정감성 61.43%를 100%로 환산했을 때, 주요 세부감정으로는 호감이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흥미(33.3%), 기쁨(9.3%)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부정감성은 총 38.6%로 나타나는데, 이를 100%로 환산했을때 주요 세부감성으로는 거부감이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려움(36.3%), 분노(5.3%), 슬픔(4.4%), 놀람(3.5%)가 그 뒤를 이었다.

1구간의 주요 긍정 세부 감정 및 감성어로는 '호감-성장하다', '흥미-기대하다', '흥미-새롭다', '호감-안정적이다', '호감-좋다', '호감-긍정적' 등이 나타났다. 특히, 테슬라 상하이 공장 건설과 중국의 기술 발전 이슈에 대해 '성장하다', '기대하다', '새롭다', '혁신적', '좋다' 등 긍정 감성어가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중 간 무역전쟁과 1단계 무역합의 이슈에 대해 '안정적이다', '긍정적' 등의 긍정 감성어가 나타난다.

<그림4> 1구간 세부감정 및 감성어 비율

<표8> 1구간 긍정감성 세부감성 및 감정어휘의 빈도

	순위	세부감성	감정어휘	빈도(건)
긍정	1	호감(good feeling)	성장하다	36
	2	흥미(interest)	기대하다	18
	3	흥미(interest)	새롭다	15
	4	호감(good feeling)	안정적이다	15
	5	호감(good feeling)	좋다	10
	6	호감(good feeling)	긍정적	8
	7	흥미(interest)	혁신적	4
	8	호감(good feeling)	간소하다	3
	9	호감(good feeling)	아름답다	3
	10	호감(good feeling)	럭셔리	2

부정 감성어의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부 감성은 '거부감(disgust)'이다. 이중, '심각하다', '어렵다', '싫다', '부족하다' 등의 감정 어휘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1구간의 주요 부정 세부 감정 및 감성어로는 '두려움-긴장되다', '거부감-심각하다', '두려움-불안', '놀람-충격', '거부감-어렵다', '분노-불만스럽다', '분노-불만스럽다'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홍콩 시위 이슈에 대해 '심각하다', '불안', '불만스럽다', '분노하다' 등의 감정어휘가 주로 나타났으며, 미중 간 무역전쟁과 1단계 무역합의

이슈에 대해 '긴장되다', '충격', '어렵다' 등의 감정어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9> 1구간 부정감성 세부감성 및 감정어휘의 빈도

	순위	세부감성	감정어휘	빈도(건)
부정	1	두려움(fear)	긴장되다	17
	2	거부감(disgust)	심각하다	6
	3	두려움(fear)	불안	4
	4	놀람(fright)	충격	4
	5	거부감(disgust)	어렵다	4
	6	분노(anger)	불만스럽다	3
	7	분노(anger)	분노하다	3
	8	거부감(disgust)	싫다	3
	9	거부감(disgust)	부족하다	3
	10	슬픔(sadness)	한숨짓다	2

2) 2구간 (2020년 1월 20일 ~ 2020년 11월 6일)

(1) 빈도 분석

2구간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된 2020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0년 11월 6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 보도된 언론보도의 주요 키워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10> 2구간 출현빈도 상위 50개 단어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코로나19	5716	26	틱톡	164
2	미국	2669	27	중국어선	154
3	확산	868	28	발원지	151
4	홍콩	777	29	피해	150
5	우한	679	30	반도체	149
6	대만	617	31	전국인민대표대회	139
7	마스크	541	32	분쟁	139
8	인도	503	33	BTS	130
9	중국인유학생	401	34	봉쇄	126
10	일본	399	35	보복	125
11	갈등	392	36	중국발	124
12	격리	347	37	자동차	124
13	북한	315	38	무증상	120

14	방역	286	39	전세기	105
15	입국금지	283	40	중국동포	100
16	제재	260	41	견제	97
17	홍콩국가보안법	248	42	항공편	94
18	백신	242	43	밀입국	93
19	전쟁	232	44	신장위구르자치구	91
20	폐쇄	218	45	교민	91
21	남중국해	198	46	홍수	88
22	역유입	187	47	삼성전자	87
23	한국인	183	48	무기	86
24	비난	179	49	공격	80
25	압박	170	50	춘절	76

위의 표를 살펴보면 제2구간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인 키워드는 단연 '코로나19(5716회)'이다. 또한 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확산(868회)', '우한(679회)', '마스크(541회)', '격리(347회)', '방역(286회)', '입국금지(283회)', '백신(242회)', '역유입(187회)', '발원지(151회)', '봉쇄(126회)', '중국발(124회)', '무증상(120회)', '전세기(105회)', '항공편(94회)' 등의 키워드가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이라는 점과 중국 확진자 수의 증가 및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중국 및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상술한 키워드가 다수 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인민대표회의(139회)'의 연기 소식과 참석자를 대상으로 핵산검사를 실시한다는 보도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상의 표 중,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출현빈도에 따라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5> 2구간 출현빈도 상위 30개 단어 워드클라우드

출현빈도 상위 30개 단어를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키워드 외에도, 홍콩국가보안법 관련 키워드도 다수 발견된다. '홍콩국가보안법', '홍콩', '갈등', '제재', '비난', '압박' 등이 관련되어 출현되었다. 특히, 홍콩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홍콩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갈등과 여론전을 통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이 기사화되었다. 또한 국제사회가 홍콩보안법에 대해 비판과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도 보도되었다.

이 외에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의 영유권 갈등에 대한 소식도 다수 보도되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 선박의 베트남 어선 침몰 사건과 코로나19 혼란을 틈타 중국이 추가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등 남중국해 장악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외에도 홍콩문제를 계기로 급격하게 악화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틱톡(TikTok) 등 중국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집중되었다. 미국 정부가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를 미국에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방국에게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또한 미국 내 중국 정보기술(IT) 전반의 퇴출이 선언되면서, 미국이 중국 정보기술 업체를 향해 강한 압박을 하고 있음이 주목되었다.

(2) 주요 키워드 결합분석

이상의 주요 키워드의 결합 빈도를 살펴보면, '코로나19-확산(469회)', '코로나19-확진(205회)', '코로나19-백신(96회)' 등 코로나19와 결합된 결합키워드가 상위 빈도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집단-감염(87회)', '중국인-입국금지(84회)', '해외-역유입(79회)', '코로나19-대응(75회)', '코로나19-발원지(71회)', '코로나19-방역(65회)', '중국산-마스크(59회)', '중국인-입국(55회)', '백신-개발(51회)', '코로나19-책임(37회)', '코로나-역유입(37회)' 등 상위 20개 결합키워드 중,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합키워드는 총 14개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볼 때, 2구간에 보도된 뉴스 중, 가장 다양한 영역에서 보도된 소재는 단연 '코로나19'라 할 수 있다.

<표11> 2구간 주요 키워드 결합 빈도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TF)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TF)
1	코로나19	확산	469	11	인도	국경	60
2	코로나19	확진	205	12	중국산	마스크	59

3	코로나19	백신	96	13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57
4	총영사관	폐쇄	87	14	중국인	입국	55
5	집단	감염	87	15	백신	개발	51
6	중국인	입국금지	84	16	국경	분쟁	49
7	해외	역유입	79	17	불법조업	중국어선	49
8	코로나19	대응	75	18	영유권	분쟁	38
9	코로나19	발원지	71	19	코로나19	책임	37
10	코로나19	방역	65	20	코로나19	역유입	37

또한,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관련 키워드의 결합 건수도 87회로 4위에 랭크되었다. 미중 무역전쟁 개시 이후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 내 첨단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국으로 빼돌리는 거점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폐쇄되었다는 소식이 중점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외에도 '국경-분쟁', '영유권-분쟁', '불법조업-중국어선' 등의 키워드가 결합되어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국 언론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미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 군사적 마찰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도했으며, 댜오위다오(釣魚島,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도 계속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역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3) 이슈분석

주요 키워드를 포함한 출현 빈도 상위 150개의 키워드를 이 기간 동안 보도된 뉴스 이슈에 따라 각 이슈별로 분류하고, 토픽 확률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2> 2구간 주요 이슈 및 토픽확률

토픽1	토픽확률	토픽2	토픽확률	토픽3	토픽확률	토픽4	토픽확률	토픽5	토픽확률
코로나19	0.016	코로나19	0.012	미국	0.016	미국	0.017	코로나19	0.013
미국	0.01	남중국해	0.009	트럼프	0.011	코로나19	0.015	BTS	0.012
호주	0.006	수출	0.008	코로나19	0.009	인도	0.005	항미원조	0.007
기업	0.005	수입	0.006	대만	0.006	홍콩	0.004	한국	0.005
반도체	0.005	경제	0.005	대선	0.005	기업	0.004	미국	0.005
화웨이	0.004	미국	0.005	기업	0.003	전쟁	0.003	윈다	0.004
		대만	0.005	안보	0.003			전쟁	0.003

먼저, 가장 주목할 점은 코로나19와 미국이 모든 이슈에 상당히 높은 토픽확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과 관련한 대부분의 보도가 코로나19 및 미국과 깊은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2구간의 주요 이슈는 크게 미중무역갈등 이슈,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의 영유권 갈등 이슈, 미국의 대선 이슈, 중국과 인도의 군사적 마찰 이슈, BTS 발언 이슈 등이 있다.

첫 번째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슈는 1구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집중 보도되었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의 대표 기업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하여 중국이 해외 기업을 제재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한 미국 역시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영상보안업체 하이크비전 등 20개 중국 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반도체 제조장비 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였으며, 틱톡 등 중국 소프트웨어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미중 간의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화웨이가 호주 법인의 직원을 감축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두 번째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의 영유권 갈등 이슈이다. 이 역시 1구간에 이어 2구간에서도 중점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이 코로나로 인해 잠시 퇴각한 틈을 타,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마찰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었다. 또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권리 주장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경고를 하였다는 뉴스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세 번째는 미국의 대선 이슈이다. 2020년 11월 치러진 미국의 대선과 관련하여, 중국이 주요 이슈로 작용하였다. 특히, 당시 재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중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소식을 필두로 미국의 국가방첩안보센터가 미국 대선에 중국·러시아·이란이 개입할 것을 우려한다는 소식 및 FBI 국장이 미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는 소식 등이 보도되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투명성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크게 감소하며, 미국과 중국 간 원만한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됨과 동시에 미국의 정부 관료가 잇따라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네 번째는 중국과 인도 간의 군사적 무력 충돌 이슈이다. 중국과 인도가 국경 관할권을 놓고 히말라야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무력 충돌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두 국가의 군사적 갈등에 대한 소식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한국 언론은 히말라야를 '제2의 남중국해'라 칭하면서 국경에서의 군사충돌을 집중 보도하였으며, 인도 국민의 반중 시위 및 중국 기업 불매운동 역시 집중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BTS의 발언 이슈이다. BTS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플리트상을 받으면서, '6·25 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련을 겪었다'라는 발언을 두고 중국의 누리꾼들이 거칠게 반응하였으며,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관영언론이 이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물류기업인 윈다(韻達)가 BTS관련 제품의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에 외신들은 '중국 누리꾼들이 BTS의 악의 없는 발언을 공격했다'라고 보도하였으며, 한국의 정치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이 조명되었다.

(4) 감성분석

2구간의 감성분석 결과, 긍정비율이 51.15%, 부정비율이 48.85%로 나타났다.

<표13> 2구간 긍부정 감성 비율

구분	빈도(건)	비율(%)
긍정	1108	51.15
부정	1058	48.85
합계	2166	100.00

이 중 긍정감성 51.15%를 100%로 환산했을 때, 주요 세부감정으로는 호감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흥미(24.2%), 기쁨(17.4%)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부정감성은 총 48.85%로 나타나는데, 이를 100%로 환산했을 때 주요 세부감성으로는 거부감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려움(31.2%), 놀람(10.5%), 슬픔(5.8%)이 그 뒤를 이었다.

2구간의 주요 긍정 세부 감정 및 감성어로는 '호감-성장하다', '호감-안정적이다', '흥미-새롭다', '호감-빠르다', '기쁨-감사하다', '호감-고급스럽다', '호감-좋다', '호감-긍정적', '호감-만족', '호감-신속하다' 등이 나타났다. 이중 '호감-성장하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2구간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시기임과 동시에 주요 이슈가 대부분 주변국과의 갈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중국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중국의 의료 및 가전제품의 수출이 가속화될 것이라 보도하였다. 또한, 화웨이를 필두로 한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집중하였다.

<그림6> 2구간 세부감정 및 감성어 비율

<표14> 2구간 긍정감성 세부감성 및 감정어휘의 빈도

	순위	세부감성	감정어휘	빈도(건)
긍정	1	호감(good feeling)	성장하다	183
	2	호감(good feeling)	안정적이다	95
	3	흥미(interest)	새롭다	51
	4	호감(good feeling)	빠르다	44
	5	기쁨(joy)	감사하다	38
	6	호감(good feeling)	고급스럽다	32
	7	호감(good feeling)	좋다	30
	8	호감(good feeling)	긍정적	28
	9	호감(good feeling)	만족	23
	10	호감(good feeling)	신속하다	22

부정 감성어의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부 감성은 ‘거부감(disgust)’이다. 이중, ‘난해하다’, ‘어렵다’, ‘심하다’, ‘심각하다’ 등의 감정 어휘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1구간의 주요 부정 세부 감정 및 감성어로는 ‘두려움-긴장되다’, ‘거부감-어렵다’, ‘놀람-충격’, ‘거부감-심각하다’, ‘거부감-부족하다’, ‘두려움-불안’, ‘두려움-공포스럽다’, ‘거부감-불량’, ‘거부감-혐오하다’, ‘슬픔-힘들다’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B

TS의 발언 이슈에 대해 ‘어렵다’, ‘충격’, ‘심각하다’, ‘혐오하다’ 등의 부정 감정 어휘가 주로 나타났으며, 주변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충돌에 대해 ‘긴장되다’, ‘심각하다’, ‘불안’, ‘공포스럽다’ 등의 감정어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중무역갈등과 화웨이 틱톡 등 기업제재조치 관련 이슈에서 ‘부족하다’, ‘불안’, ‘불량’ 등의 부정 감정 어휘가 나타났다.

<표15> 2구간 부정감성 세부감성 및 감정어휘의 빈도

	순위	세부감성	감정어휘	빈도(건)
부정	1	두려움(fear)	긴장되다	118
	2	거부감(disgust)	어렵다	118
	3	놀람(fright)	충격	111
	4	거부감(disgust)	심각하다	95
	5	거부감(disgust)	부족하다	46
	6	두려움(fear)	불안	39
	7	두려움(fear)	공포스럽다	31
	8	거부감(disgust)	불량	31
	9	거부감(disgust)	혐오하다	22
	10	슬픔(sadness)	힘들다	21

3) 3구간(2020년 11월 7일 ~ 2021년 10월 31일)

(1) 빈도 분석

3구간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 시작한 2020년 11월 7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신문기사의 주요 키워드 중 출현빈도 상위 50개의 단어를 정리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16> 3구간 출현빈도 상위 50개 단어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코로나19	1695	26	인권탄압	141
2	대만	1109	27	알리바바	136
3	홍콩	1014	28	미얀마	131
4	백신	690	29	방역	130
5	북한	421	30	나포	128
6	협력	386	31	황사	124

7	견제	373	32	시노팜	124
8	제재	349	33	중국발	119
9	시노백	336	34	G7	115
10	인도	299	35	자동차	113
11	규제	265	36	쿼드	113
12	무역	257	37	석탄	113
13	압박	249	38	미사일	110
14	김치	245	39	화성	109
15	중국어선	228	40	배터리	108
16	러시아	226	41	춘절	107
17	반도체	216	42	테슬라	100
18	남중국해	212	43	전국인민대표대회	98
19	우주	190	44	정상회의	92
20	올림픽	185	45	텐센트	90
21	신장위구르자치구	167	46	인도태평양	88
22	백신접종	167	47	착륙	88
23	불법조업	148	48	가상화폐	83
24	전기차	144	49	전력난	83
25	발사	143	50	나토	77

이 중, 출현빈도 상위 30위의 키워드만을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7> 3구간 출현빈도 상위 30개 단어 워드클라우드

3구간에서 보도된 중국 관련 신문보도는 총 6,636건으로, 가장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키워드는 '코로나19'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키워드로는 '백신(690회)', '시노백(336회)', '백신접종(167회)', '방역(130회)' 등이 있다. 또한, 대만(1109회), 홍콩(1014회), 북한(421회), 인도(299회), 러시아(226회), 미얀마(131회) 등 주변국 역시 출현빈도 상위에 랭크되었다.

위의 3구간 출현빈도 상위 30개 단어 중 특이점은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245회)'가 출현빈도 상위 14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2011년 11월 27일, 한국의 김치와 비슷한 중국의 쓰촨 지방의 파오차이(泡菜)의 제조법이 국제표준인 ISO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고, 이후 중국이 김치의 국제 표준을 선점했다는 내용과 김치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는 내용이 후속기사로 보도되었다. 이후, 한국 정부의 파오차이가 받은 인가가 김치와 관련 없는 표준이라는 해명 기사와 더불어 중국 정부 역시 파오차이와 김치는 다르다는 해명 기사가 나왔으나, 국내 언론은 이와 관련한 후속기사를 계속 보도하였다. 한국 언론은 한국과 중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 BBC 방송사의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중국 언론의 김치 국제 표준 관련 오보에 대해 조명하였으며, 구글과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번역기에서 김치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파오차이가 나온다는 등의 기사를 내놓았다. 한국 언론은 이 사건을 일명 '김치공정'이라 부르며 집중 조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치가 파오차이와는 다른 한국 고유의 것임을 알리기 위한 한국 정부, 전문가는 물론 네티즌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사를 통해 소개하였다.

(2) 주요 키워드 결합분석

먼저, 코로나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 결합 빈도를 살펴보면, '코로나19-백신', '코로나19-확산', '코로나19-기원' 등이 각각 1위, 2위, 4위로 나타난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 영역이 2구간에 비해 축소됨과 동시에, 중국에서 개발한 시노백(Sinovac)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표17> 3구간 주요 키워드 결합 빈도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TF)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TF)
1	코로나19	백신	226	11	선거제	개편	39
2	코로나19	확산	98	12	인터넷	기업	39
3	불법조업	중국어선	75	13	무력	시위	39
4	코로나19	기원	67	14	오징어	게임	37
5	규제	강화	59	15	경제	동반자	34
6	중국발	황사	49	16	기업	규제	32
7	협력	강화	47	17	영향력	확대	31
8	대만	방공식별구역	46	18	군사	긴장	30
9	기원	조사	44	19	중국판	트위터	29
10	화성	착륙	42	20	투자	금지	28

또한, 미중 갈등과 관련된 키워드 결합이 3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보인다. '규제-강화', '협력-강화', '대만-방공식별구역', '무력-시위', '경제-동반자', '기업-규제', '군사-긴장', '투자-금지' 등 대부분의 주요 키워드가 미중 갈등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2020년 11월 11일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중국군의 무인정찰기 WZ-7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여 공중무력시위를 한 사건과 같은 달 18일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국내 언론은 경직된 미중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 외에도 홍콩의 선거제와 관련한 주요 키워드로는 '선거제-개편', '영향력 확대', '중국판-트위터' 등이 있다. 한국 언론은 홍콩의 대중국 시위가 지속되면서 중국 정부가 자신들에 대한 홍콩 측의 반대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한 일환으로 홍콩의 선거제를 개편한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EU가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 움직임에 경고를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결국 2021년 3월 진행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이 속보의 형태로 보도되었다. 이후 한국 언론은 중국과 미국의 정치인은 물론, EU와 친중 성향의 홍콩정치인, 홍콩의 야권 정치인 등과의 인터뷰와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홍콩 선거제 개편이 시사하는 점과 선거제 개편의 홍콩의 모습을 전망하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3) 이슈분석

3구간의 언론보도에 나타난 출현빈도 상위 150개 키워드를 각 이슈 및 토픽 확률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8> 3구간 주요 이슈 및 토픽확률

토픽1	토픽확률	토픽2	토픽확률	토픽3	토픽확률	토픽4	토픽확률	토픽5	토픽확률
코로나19	0.014	미국	0.009	중국어선	0.012	오징어	0.01	미국	0.012
미국	0.012	홍콩	0.006	해경	0.008	업체	0.009	대만	0.007
백신	0.009	한국	0.005	해상	0.007	게임	0.009	외교	0.007
시노백	0.007	전력난	0.004	불법조업	0.007	불법	0.008	시진핑	0.005
외교	0.005	경제	0.004	군산	0.006	유통	0.006	바이든	0.005
승인	0.005	석탄	0.004	나포	0.005	공장	0.006	회담	0.004
한국	0.003	전력	0.004	퇴거	0.005	넷플릭스	0.005	외교부	0.004
집단	0.003	업체	0.003	쌍끌이	0.004	차단	0.003	북한	0.004

첫 번째 이슈는 중국의 백신 개발 관련 이슈로, 중국의 국영 제약사 시노백이 개

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가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국이 백신 확보 경쟁에 들어가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시노백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 북한 등의 여러 국가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승인 혹은 승인하였다는 소식이 중국의 '백신외교'라는 타이틀로 국내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을 둘러싼 논란 역시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터키,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서 시노백 백신을 허용하여 접종하고 있으나,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거나 의료인이 집단 감염되는 등의 사례가 국내에 전해졌다. 이러한 국내 보도는 시노백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노백사의 불투명한 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의 전력난 관련 이슈로, 2020년 12월부터 중국의 전력난 이슈가 부각되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 속에 호주산 철광석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호주산 석탄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서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국내 언론은 중국의 전력난과 관련하여, 중국의 저장성, 후난성, 장시성 등의 제조시설 및 반도체업체 공장에 대규모 전력제한조치가 내려져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음이 보도되었다. 또한 저장성의 중학교가 기온이 3도 이상일 때 난방을 켤 수 없게 한다는 소식을 비롯하여, 가로등과 신호등의 운영 중지로 인한 교통사고, 엘리베이터의 전기가 끊겨 발생한 인명사고, 전력공급제한으로 인한 가스누출사고 등의 사건사고 소식이 함께 보도되었다. 또한 전력난이 장기화되면서, 2021년 후반부에는 중국의 31개 지역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전력공급제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중국 당국이 전력난 해소를 '긴박한 정치 임무'로 규정하고 미국의 천연가스 및 러시아 등 외국산 발전용 석탄의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에너지 안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전해졌다.

세 번째 이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관련 이슈이다. 국내 언론은 목포, 백령도, 가거도, 제주도, 연평도, 소청도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 및 퇴거 조치하였다는 소식을 연이어 보도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군산 지역의 언론보도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군산 해경이 불법조업을 하던 쌍끌이 중국어선 1천 800척을 퇴거하였다는 소식, 4억 상당 중국산 담배를 밀수하던 밀수범을 체포하였다는 소식, 조업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 나포하였다는 소식을 비롯하여 군산 어청도서 239t의 중국어선 침몰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 단속 훈련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중 어업 협력회의에서 중국에 불법조업 근절을 당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네 번째 이슈는 넷플릭스에서 제작 및 방영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이슈이다. 2021년 9월 17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비록 중국에서는 이 드라마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았으나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을 통해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핼러윈 데이가 겹치면서 중국의 공장에서 트레이닝복, 가면 등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상품을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중국 이우(義烏)지역의 도매시장에 <오징어게임> 관련 상품이 즐비한 모습과 중국의 한 네티즌이 공개한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 제작 현장 등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중국이 한국 드라마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 같은 한국 언론의 움직임에 한국 외교부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중국 당국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징어 게임' 검색어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보도되었다.

다섯 번째 이슈는 당시 미국의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정부와 중국 간의 관계에 관한 보도이다. 2020년 말 치러진 대선을 전후로 하여, 이듬해인 1월 20일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된 이후까지 한국 언론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한국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아시아 지역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과 함께 미중 무역합의의 재협상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미중 간의 향후 관계에 대한 전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한국의 언론은 향후 미중 관계의 전망과 관련한 보도는 대부분 중국 혹은 미국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동맹과 포위 전략을 통해 중국을 높은 수준으로 압박할 것을 예상하며 미중 관계가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바이든이 중국에 4차례 방문한 경험 등의 인연을 강조하며, 중국의 '오랜 친구'인 바이든에게 중국 정부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모두 보도하는 형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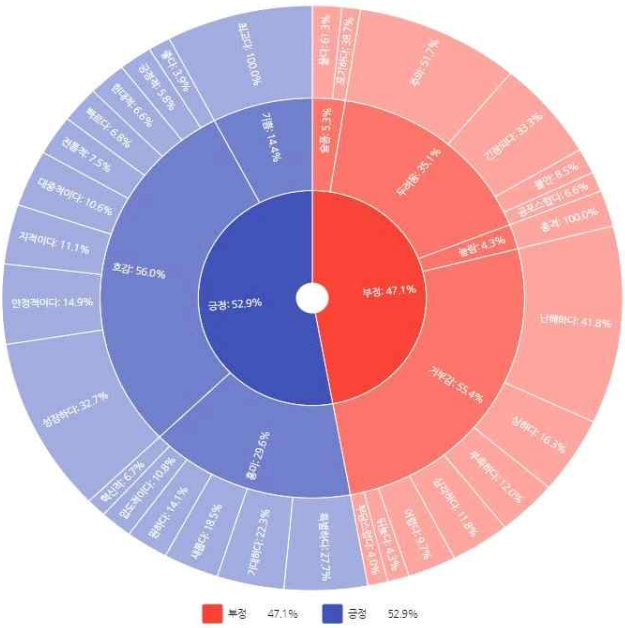
(4) 감성분석

3구간의 감성 분석 결과, 긍정비율이 52.15%, 부정비율이 47.13%로 나타난다.

<표19> 3구간 긍부정 감성 비율

구분	빈도(건)	비율(%)
긍정	1317	52.87
부정	1174	47.13
합계	2491	100.00

<그림8> 3구간 세부감정 및 감성어 비율



이 중, 긍정감성 52.87%를 100.%로 보았을 때, 주요 세부감성은 호감(56.0%)이 가장 높았으며, 흥미(29.6%), 기쁨(14.4%)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부정감성 47.13%를 100로 보았을 때, 거부감이 57.8%를 차지하며 과반수를 넘는 수치를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두려움(32.6), 슬픔(5.3%), 놀람(4.3%) 등의 부정 감성이 나타난다.

<표20> 3구간 긍정감성 세부감성 및 감정어휘의 빈도

	순위	세부감성	감정어휘	빈도(건)
긍정	1	호감(good feeling)	성장하다	241
	2	기쁨(joy)	최고다	190
	3	호감(good feeling)	안정적이다	110
	4	흥미(interest)	특별하다	108
	5	흥미(interest)	기대하다	87
	6	호감(good feeling)	지적이다	82
	7	호감(good feeling)	대중적이다	78
	8	흥미(interest)	새롭다	72
	9	흥미(interest)	원하다	55
	10	호감(good feeling)	전통적	55

3구간의 주요 긍정 세부 감정 및 감성어로는 ‘호감-성장하다’, ‘기쁨-최고다’, ‘호감

-안정적이다', '흥미-특별하다', '흥미-기대하다' 등이 나타났다. 특히, '호감-성장하다'의 경우,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와 바이든 정부와 중국 간의 관계에 관한 이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정 감성어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세부감성은 거부감과 두려움이다. 또한 가장 많은 출현빈도를 나타내는 부정감성 감정어휘는 '거부감-난해하다', '두려움-주의', '두려움-긴장하다'였다. 흥미로운 점은,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슈와 바이든 정부와 중국 간의 관계에 관한 이슈에서 긍·부정감성 감정어휘가 비슷한 빈도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 언론보도가 중국의 시노백 백신과 미중 관계에 대하여 낙관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21> 3구간 부정감성 세부감성 및 감정어휘의 빈도

	순위	세부감성	감정어휘	빈도(건)
부정	1	거부감(disgust)	난해하다	272
	2	두려움(fear)	주의	213
	3	두려움(fear)	긴장되다	137
	4	거부감(disgust)	심하다	106
	5	거부감(disgust)	부족하다	78
	6	거부감(disgust)	심각하다	77
	7	거부감(disgust)	어렵다	63
	8	놀람(fright)	충격	50
	9	슬픔(sadness)	울다	38
	10	두려움(fear)	불안	35

이 외에도, '거부감- 심하다', '거부감-부족하다', '거부감-심각하다', '거부감-어렵다', '놀람-충격', '슬픔-울다', '두려움-불안' 등의 부정감성 감정어휘가 출현하고 있다. 부정감성 감정어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전력난 관련 이슈에서 '거부감-심하다', '거부감-부족하다' '거부감-어렵다'등의 감정어휘가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4구간 (2021.11.01~2022.09.30)

4구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시기로,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강제성 있는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독감과 감기와 같은 풍토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언론은 중국과 코로나19를 연관하여 보도하는 기

사를 점차 줄여갔으며, 보다 넓은 관점과 영역에서 중국을 바라봄으로써 이전 구간에 비해 다양한 이슈와 키워드가 출현하게 되었다.

(1) 빈도 분석

4구간 동안 국내에서 보도된 기사에서 추출한 출현빈도 상위 50개 단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22> 4구간 출현빈도 상위 50개 단어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미국	2116	26	여객기	110
2	대만	1659	27	중국어선	110
3	코로나19	906	28	배터리	110
4	러시아	657	29	오미크론	108
5	홍콩	603	30	인권탄압	101
6	우크라이나	469	31	전국인민대표대회	100
7	봉쇄	386	32	IPEF	98
8	북한	382	33	석탄	96
9	훈련	367	34	사드	93
10	베이징동계올림픽	325	35	신장위구르자치구	91
11	반도체	282	36	헝다	83
12	인도	248	37	전투기	83
13	규제	229	38	민주주의	82
14	미사일	212	39	테슬라	81
15	부동산	208	40	충돌	81
16	요소수	185	41	격리	80
17	전기차	144	42	불법	80
18	공급망	136	43	영향력	78
19	남중국해	135	44	보이콧	77
20	인도태평양	134	45	알리바바	76
21	발사	133	46	백신	74
22	군용기	125	47	나토	72
23	셧다운	124	48	우크라이나전쟁	71
24	자동차	123	49	대만해협	67
25	제로코로나	123	50	인공지능	66

위의 표에서, 빈도수 상위 30개 단어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9> 4구간 출현빈도 상위 30개 단어 워드클라우드

위의 표를 보면, 2구간과 3구간에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던 '코로나19'가 3위로 내려갔고, '미국(2116회)', '대만(1659회)'이 출현빈도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그 뒤를 이어 '러시아(657회)', '홍콩(603회)', '우크라이나(469회)', '봉쇄(386회)', '북한(382회)', '훈련(367회)', '베이징동계올림픽(325회)' 등이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다. 출현빈도 상위 10위 단어 중 6개의 관련 국가명이 랭크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 중국 관련 이슈가 여전히 주변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구간에서 주목할 만 한 키워드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관련한 키워드이다. 관련 키워드로는 '봉쇄(386회)', '미사일(212회)', '인도태평양(134회)', '충돌(81회)', '우크라이나전쟁(71회)'등이 있다.

(2) 주요 키워드 결합분석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결합키워드는 '코로나19-확산', '코로니19-방역', '코로나10 봉쇄'이다. 이 같은 결합키워드의 출현은 중국의 제로코로나(Zero corona) 정책[5]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시행된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로 인해, 국내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슈화되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 한 주요 결합키워드로는 '우크라이나-침공', '러시아-우크라이나', '러시아-제재', '미사일-발사', '군사-개입' 등이 있다. 이 키워드는 앞서 설명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관련한 키워드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

5)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봉쇄 조치 등 높은 강도의 규제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고강도 방역 정책이다.

적 긴장을 시사하는 '대만-방문', '대만-침공', '대만-군사', '대만-방공식별구역' 등의 키워드가 결합되어 나타났다.

<표23> 4구간 주요 키워드 결합 빈도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TF)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TF)
1	코로나19	확산	211	11	러시아	제재	41
2	우크라이나	침공	198	12	무력	시위	41
3	대만	방문	162	13	물가	상승	38
4	러시아	우크라이나	82	14	안보	협정	37
5	종전	선언	55	15	미사일	발사	37
6	대만	침공	55	16	군사	개입	37
7	협력	강화	47	17	코로나19	봉쇄	36
8	경기	둔화	47	18	대만	군사	35
9	외교	보이콧	44	19	집단	감염	35
10	코로나19	방역	42	20	대만	방공식별구역	33

(3) 이슈분석

이 기간 동안에는 5개의 토픽 중에 코로나19관련 단독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각 이슈마다 코로나19의 토픽확률이 역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난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구간과 3구간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던 코로나19 키워드가 4구간의 토픽 키워드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이슈로서 보도되었다는 것을 반증함과 동시에, 코로나19관련 이슈가 국내 언론이 주목하는 주요 이슈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는 4구간의 주요 이슈에 나타나는 키워드와 각 키워드의 토픽확률이다.

<표24> 4구간 주요 이슈 및 토픽확률

토픽1	토픽확률	토픽2	토픽확률	토픽3	토픽확률	토픽4	토픽확률	토픽5	토픽확률
우크라이나	0.006	대만	0.024	배터리	0.008	고구려	0.007	위원장	0.007
군사	0.006	미국	0.015	관세	0.007	연표	0.006	리잔수	0.007
통상	0.005	군사	0.007	리튬	0.006	유물	0.005	군사	0.006
러시아	0.005	외교	0.006	자동차	0.004	대표	0.005	의장	0.005
분쟁	0.004	우크라이나	0.005	공급	0.004	박물관	0.005	외교	0.005
관계	0.004	러시아	0.005	점유	0.003	전시	0.004	상무	0.005
개입	0.004	훈련	0.004	의존	0.003	일본	0.004	전국인민대표대회	0.005
대만	0.004	침공	0.004	소재	0.003	고대	0.003	방한	0005
긴장	0.003	무력	0.004	흑연	0.003			회담	0.004

위의 표를 살펴보면, 4구간의 주요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 전기차 배터리, 고구려 역사왜곡, 리잔수의 방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관련 이슈로, 국내 언론은 두 국가의 전쟁에서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초기에는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국내 언론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충돌로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두 번째는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에 대한 이슈이다. 사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문제로, 대만과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 등 전 세계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이슈이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갈등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 언론은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을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였다. 특히, 한국 언론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정치적 마찰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미국 상·하원 의원, 프랑스 의원, 유럽의회 부의장 등 주요국 정치인의 대만 방문과 연결하여 보도함으로써,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전 세계적인 안건임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켰다.

세 번째 이슈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슈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가 기아, BMW 등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쌍용자동차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다. 이 외에도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과 코발트, 천연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보도와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이에 후속기사로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기술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분석하는 기사, 국내기업의 돌파구를 찾는 기사 등이 보도되었다.

네 번째 이슈는 고구려 역사 왜곡과 관련된 이슈이다. 한중 수교 30주년과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동방길금(동방의 상서로운 금속) -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에 전시된 한국고대사 연표에서,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고의적으로 제외한 사건이 발생하며 국내 언론에서 관련 기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 외교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중국국가박물관이 연표의 수정이나 공식적인 사과

없이 연표를 전시회에서 철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언론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와 발해사 등 한국 고대의 북방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중국의 꼼수라는 비난 기사를 내놓았다. 결국 국내에서 논란이 되자, 국립중앙박물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외교부 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정리되는 듯하였으나, 중국 외교부측이 고구려 문제는 학술문제이며 정치적 조작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다섯번째 이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석인 리잔수(栗战书)의 방한과 관련한 이슈이다. 2022년 9월 15일 리잔수의 방한과 관련하여, 국내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과의 회담을 밀착 취재하였으며, 기념사진촬영 및 공동언론발표 등 관련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흥미로운 점은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서울공항에 도착할 때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영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달 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당시의 의전 홀대 논란이 다시 소환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 언론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일부러 의전을 하지 않은 것이라 분석하며,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한국 간의 보이지 않은 외교 전쟁에 대해 언급하였다.

(4) 감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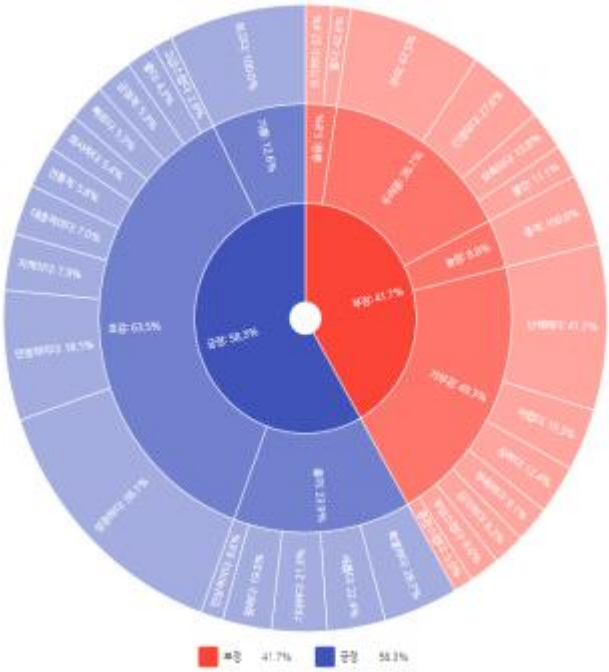
4구간의 국내 언론보도에 나타나는 감정어를 분석한 결과, 긍정비율이 58.27% 부정비율이 41.73%로 나타났다.

<표25> 4구간 긍부정 감성 비율

구분	빈도(건)	비율(%)
긍정	1459	58.27
부정	1045	41.73
합계	2504	100.00

이 중 긍정 감성 58.27%를 100%로 환산했을 때, 주요 세부 감성으로는 '호감'이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흥미(23.9%)', '기쁨(12.6%)'이 뒤를 이었다. 또한 부정감성은 41.7%로, 100%로 환산해보면, '거부감'이 절반에 가까운 49.3%로 가장 높았으며, '두려움(36.1%)', '놀람(8.8%)', '슬픔(5.8%)'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10> 4구간 세부감정 및 감성어 비율



4구간의 주요 긍정 감정 어휘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부감성은 '호감'이다. 또한 가장 빈도가 높은 세부 감성 및 감정 어휘로는 '호감-성장하다', '기쁨-최고다', '호감-안정적하다', '흥미-특별하다', '흥미-새롭다', '흥미- 기대하다', '호감-지적이다' 등이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슈에서 '성장하다', '새롭다', '기대하다' 등의 감정 어휘가 주로 나타났으며, 리잔수의 방한과 관련한 이슈에서는 '성장하다', '안정적이다', '기대하다', '원하다' 등의 감정어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26> 4구간 긍정감성 세부감성 및 감정어휘의 빈도

	순위	세부감성	감정어휘	빈도(건)
긍정	1	호감(good feeling)	성장하다	353
	2	기쁨(joy)	최고다	184
	3	호감(good feeling)	안정적이다	168
	4	흥미(interest)	특별하다	100
	5	흥미(interest)	새롭다	78
	6	흥미(interest)	기대하다	74
	7	호감(good feeling)	지적이다	73
	8	흥미(interest)	원하다	66
	9	호감(good feeling)	대중적이다	65
	10	호감(good feeling)	전통적	54

부정 감성어의 경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부 감성은 '거부감'이다. 이중, '난해하다', '어렵다', '심하다', '부족하다', '심각하다' 등의 감정 어휘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4구간의 주요 부정 세부감성 및 감정 어휘로는 '거부감-난해하다', '두려움-주의', '두려움-긴장되다', '놀람-충격', '거부감-어렵다' 등이 있다. 특히, 4구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충돌 및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이슈가 겹치면서, '두려움-주의', '두려움-긴장되다', '놀람-충격', '두려움-위축되다', '두려움-불안' 등의 감정 어휘가 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27> 4구간 부정감성 세부감성 및 감정어휘의 빈도

	순위	세부감성	감정어휘	빈도(건)
부정	1	거부감(disgust)	난해하다	215
	2	두려움(fear)	주의	179
	3	두려움(fear)	긴장되다	104
	4	놀람(fright)	충격	92
	5	거부감(disgust)	어렵다	80
	6	거부감(disgust)	심하다	64
	7	두려움(fear)	위축되다	52
	8	거부감(disgust)	부족하다	47
	9	두려움(fear)	불안	42
	10	거부감(disgust)	심각하다	42

5) 5구간 (2022,10.01.~2023.08.22.)

(1) 빈도 분석

5구간의 기간 동안 국내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서 추출한 출현빈도 상위 50개 단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28> 5구간 출현빈도 상위 50개 단어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미국	1921	26	황사	127
2	대만	1151	27	정상회의	123
3	코로나19	890	28	인공지능	121
4	일본	664	29	위드코로나	121

5	방역	635	30	무기	120
6	반도체	579	31	압박	118
7	러시아	560	32	침공	117
8	입국	499	33	G7	113
9	중국발	434	34	미사일	113
10	협력	389	35	남중국해	113
11	북한	366	36	PCR	112
12	비자	335	37	테슬라	107
13	군사	303	38	배터리	97
14	규제	252	39	공급망	92
15	우크라이나	241	40	춘절	89
16	부동산	197	41	불법조업	88
17	제재	184	42	리오프닝	80
18	시위	179	43	해킹	77
19	전기차	167	44	격추	76
20	정찰풍선	166	45	우크라이나전쟁	75
21	제로코로나	156	46	인민해방군	73
22	중국어선	149	47	애플	65
23	봉쇄	139	48	전국인민대표대회	63
24	유커	128	49	비밀경찰	60
25	자동차	128	50	화장품	60

위의 표에 나타난 50개의 단어 중, 빈도수 상위 30개 단어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1> 5구간 출현빈도 상위 30개 단어 워드클라우드

위의 표와 그림을 보면, '미국(1921회)', '대만(1151회)', '일본(664회)', '러시아(560회)', '북한(366회)', '우크라이나(241회)' 등의 국가명이 상위에 링크되어있다. 또한, 여

전히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19(890회)', '방역(635회)', '제로코로나(156회)', '봉쇄(139회)', '위드코로나(121회)', 'PCR(112회)' 등이 주요 키워드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키워드를 살펴보면, 약 3년간 유지하던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완화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이 한국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위드코로나', 'PCR' 등의 키워드가 출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와 관련하여 '입국(499회)', '중국발(434회)', '비자(335회)', '규제(252회)', '유커(128회)' 등 한중 간 비자 발급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도 다수 출현하였다.

(2) 주요 키워드 결합분석

상술한 키워드 빈도분석과 마찬가지로, 주요 키워드 결합에서도 코로나19 정책의 변화와 함께 한국과 중국 간 비자 발급 관련 키워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결합빈도 상위 20위 안에 '비자-발급', '중국발-입국', '단기-비자', '방역-완화', '발급-중단', '위드코로나-전환', 코로나-감염자' 등 코로나19 정책과 한국-중국 간 비자발급 관련 결합 키워드가 랭크되었으며, 출현빈도의 순위 역시 1위부터 4위를 모두 차지하는 등 관련 키워드 간의 결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29> 5구간 주요 키워드 결합 빈도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TF)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TF)
1	비자	발급	199	11	미국	반도체	48
2	중국발	입국	189	12	발급	중단	47
3	단기	비자	154	13	대만	침공	45
4	방역	완화	138	14	경기	둔화	45
5	협력	강화	104	15	위드코로나	전환	40
6	수출	통제	98	16	우크라이나	침공	39
7	군사	훈련	63	17	코로나19	감염자	39
8	반도체	기업	55	18	반도체	생산	38
9	불법조업	중국어선	49	19	청년	실업	36
10	반도체	수출	48	20	규제	강화	36

또한 주목할 만한 결합키워드로는 '수출-통제', '반도체-기업', '반도체-수출', '미국-반도체', '반도체-생산' 등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갈등 관련 결합키워드가 있다. 특히,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제재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하여 보도가 집중되면서, 관련 키워드 결합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3) 이슈분석

5구간의 주요 이슈는 중국과 한국간의 비자 발급 중단 이슈,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제재 이슈,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와 관련된 이슈, 중국발 황사 관련 이슈 등 4개의 이슈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으나, 이슈 중심성의 면에서 볼 때 상기한 4개의 이슈가 가장 중심적인 이슈로 분석된다.

<표30> 5구간 주요 이슈 및 토픽확률

토픽1	토픽확률	토픽2	토픽확률	토픽3	토픽확률	토픽4	토픽확률
코로나19	0.012	미국	0.013	싱하이밍	0.015	황사	0.009
한국	0.009	반도체	0.011	주한중국대사관	0.006	중국발	0.006
일본	0.008	규제	0.007	발언	0.006	나쁨	0.006
단체관광	0.008	수출	0.006	중국대사	0.005	베이징	0.006
비자	0.007	제재	0.005	조치	0.005	코로나19	0.005
정부	0.006	인공지능	0.004	논란	0.004	기상청	0.004
방역	0.006	공급망	0.004	의원	0.003	미세	0.003
중국발	0.005	애플	0.003	항의	0.003	먼지	0.003
입국	0.005					발원지	0.003
방문	0.005						

첫 번째 이슈는 중국과 한국간의 비자 발급 중단 이슈이다. 3년 가까이 고강도 방역 정책을 시행하다가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주청두총영사관(駐成都總領事館)과 주선양총영사관(駐沈阳總領事館)이 비자 접수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된 이후, 9일 만에 중국이 한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전면 중단하는 등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한국인 일본인에 대한 중국 경유 비자와 도착비자 발급 중단하면서 한국 언론은 이를 중국의 추가 보복이라 보도하였고,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중국 방문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항공편 운항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복 프레임이 더욱 견고해졌다. 이후 공무 비자와 비즈니스 비자, 그리고 단기비자가 다시 발급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언론은 중국 비자 서비스센터에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과 중국 여행 상품의 운영이 재개되었다는 소식 등을 전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서도 한국 비자와 관련된 검색이 급증했으며, 비자발급 대행과 같은 한국 여행과 관련한 홍보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두 번째는 미중 간 반도체 제재 관련 이슈이다. 한국 언론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제재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하여 밀도 높은 보도를 이어갔다. 2022년 10월 미국 정부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 및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 보도를 내놓았다. 이후 삼성, SK 등 국내기업의 중국공장 반도체 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유예 소식, 애플의 YMTC 반도체 공급 계획 보류 소식 등이 보도되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미국의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언론은 미중 반도체 전쟁이 마이크론 제재로 본격화되었다고 분석하며,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추후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 미중 반도체 전쟁의 전망 등에 대해 분석 기사를 보도하였다. 또한 이번 중국의 조치가 G7 정상이 중국의 경제 관행을 견제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다음날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에서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도하였다.

세 번째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관련된 이슈이다. 2023년 6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회동 중, 싱하이밍이 현 정부의 서방 중심 외교 정책에 대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에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한 한국 언론은 대부분 싱하이밍 대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놓았다. 다만, 경향신문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관점에서 싱하이밍이 실리외교를 언급한 것에 일리가 있다는 평을 덧붙였으며, 동아일보는 보수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내정간섭 논란이라 지칭하며, 이재명이 싱하이밍의 '베팅' 발언을 지적했어야 한다며 싱하이밍과 이재명을 함께 비판했다. 진보 성향 언론인 한겨레 역시 이재명이 외국 대사와의 회동을 생중계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사라 비판했다.

네 번째는 중국발 황사 관련 이슈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주춤하던 중국발 황사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관련 이슈가 상위에 랭크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한국은 중국의 공기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2023년 3월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지수(AQI)가 6급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하며 공기질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500㎍/㎥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며,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국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예측 보도가 이어졌다. 또한 국내에 중국발 황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공기 청정 관련 주식 종목이 강세를 보인다는 기사 역시 보도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보도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에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며 심지어 재

난이나 지옥이라는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며 비판했다.

(4) 감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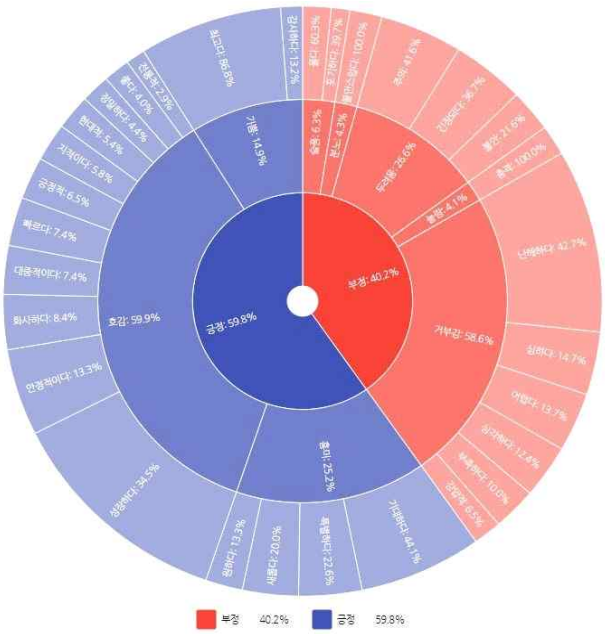
5구간의 기간 동안 국내 언론의 기사에 나타나는 감정어의 긍·부정 감성비율은 긍정비율이 59.83%, 부정비율이 40.17%로 나타난다.

<표31> 5구간 긍부정 감성 비율

구분	빈도(건)	비율(%)
긍정	1370	59.83
부정	920	40.17
합계	2290	100.00

5구간의 주요 감성 어휘 중에서, 긍정감성 59.83%를 100로 환산 시, 가장 높은 주요 세부감성은 '호감'으로 총 59.9%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흥미 25.2%', '기쁨 14.9%' 등이 나타난다. 또한, 부정감성은 총 40.17%로, 이를 100%로 환산하면 '거부감'이 58.6%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뒤를 이어 '두려움'이 26.6%를 차지하였으며, '슬픔(6.3%)', '분노(4.3%)', '놀람(4.1%)'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12> 5구간 세부감정 및 감성어 비율



5구간의 주요 긍정 감성 어휘 중에서 가장 많은 출현빈도를 나타내는 세부감성은 단연 '호감'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빈도의 세부감성 및 감정 어휘로는 '호감-성장하다', '기쁨-최고다', '흥미-기대하다', '호감-안정적이다', '흥미-특별하다', '흥미-새롭다', '호감-화사하다', '호감-대중적이다', '호감-빠르다', '호감-긍정적' 등이 나타났다. 사실, 5구간의 주요 이슈 중에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감정어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긍정 감성 감정어휘가 출현한 이슈를 분석해보면, 한국 언론은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제재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등에 대한 기사에서 '성장하다' '기대하다' '새롭다' '빠르다', '긍정적' 등의 긍정 감성어휘를 사용하여 보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32> 5구간 긍정감성 세부감성 및 감정어휘의 빈도

	순위	세부감성	감정어휘	빈도(건)
긍정	1	호감(good feeling)	성장하다	283
	2	기쁨(joy)	최고다	177
	3	흥미(interest)	기대하다	152
	4	호감(good feeling)	안정적이다	109
	5	흥미(interest)	특별하다	78
	6	흥미(interest)	새롭다	69
	7	호감(good feeling)	화사하다	69
	8	호감(good feeling)	대중적이다	61
	9	호감(good feeling)	빠르다	61
	10	호감(good feeling)	긍정적	53

부정감성어의 경우, 상위에 랭크된 부정 감정 어휘가 상술한 4개의 주요 이슈에서 모두 골고루 나타나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중국과 한국 간의 비자 발급 중단 이슈와 관련하여, '난해하다', '주의', '불만스럽다', '충격' 등의 감정 어휘가 나타났으며, 미중 간의 반도체 제재 이슈와 관련하여 '긴장되다', '심하다' 등의 감정어휘가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3> 5구간 부정감성 세부감성 및 감정어휘의 빈도

	순위	세부감성	감정어휘	빈도(건)
부정	1	거부감(disgust)	난해하다	230
	2	두려움(fear)	주의	102

	3	두려움(fear)	긴장되다	90
	4	거부감(disgust)	심하다	79
	5	거부감(disgust)	어렵다	74
	6	거부감(disgust)	심각하다	67
	7	거부감(disgust)	부족하다	54
	8	두려움(fear)	불안	53
	9	분노(anger)	불만스럽다	40
	10	놀람(fright)	충격	38

6) 6구간(2023.08.23.~2023.08.31)

(1) 빈도 분석

6구간은 약 1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기간이 매우 짧다. 따라서 분석 대상의 수가 다른 구간에 비해 적으며, 분석결과 나타난 출현 빈도 낮다. 6구간의 기간 동안 국내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서 추출한 출현빈도 상위 50개 단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34> 6구간 출현빈도 상위 50개 단어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일본	111	26	불안	7
2	후쿠시마오염수	51	27	배구	6
3	북한	44	28	EV5	6
4	방류	40	29	코로나19	6
5	수산물	32	30	인지세	6
6	단체관광	30	31	인천항	6
7	부동산	30	32	배터리	6
8	대만	27	33	탈북민	5
9	정율성	24	34	아시안게임	5
10	반일	21	35	신장위구르자치구	5
11	위기	20	36	흑사병	5
12	유커	18	37	방사능	5
13	부동산	15	38	헝다	5
14	제주	13	39	사재기	5
15	디폴트	12	40	불매	5
16	크루즈	12	41	제재	4
17	전기차	11	42	서빙로봇	4
18	수입금지	9	43	호위함	4

19	동북아박람회	8	44	자매도시	4
20	면세점	8	45	판다	4
21	반발	8	46	삼중수소	4
22	무기	8	47	대만해협	4
23	반도체	8	48	남중국해	4
24	소금	7	49	북송	4
25	인공지능	7	50	사우디아라비아	4

위의 표를 살펴보면, 6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국가명은 '일본(111회)', '북한(44회)', '대만(27회)', '사우디아라비아(4회)' 등이 있다. 그동안 중국 관련 보도가 대부분 주변국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일본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한 것과 관련한 주요 키워드가 다수 나타났다. '일본'을 비롯하여, '후쿠시마오염수(51회)', '방류(40회)', '수산물(32회)', '반일(21회)' '수입금지(9회)', '소금(7회)' '불안(7회)', '인천항(6회)', '방사능(5회)', '사재기(5회)', '불매(5회)' 등이 주요 키워드로 랭크되었다.

위의 표에 나타난 50개의 단어 중, 빈도수 상위 30개 단어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3> 6구간 출현빈도 상위 30개 단어 워드클라우드

(2) 주요 키워드 결합분석

주요 결합 키워드 역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계된 키워드들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는 '원자력-발전소', '후쿠시마오염수-방류', '일본-수산물', '반일-감정', '해양-방류', '수산물-수입', '감정-고조', '수

산물-수입금지', '소금-사재기', '불매-운동' 등으로, 20개의 결합키워드 중 절반인 10개의 결합키워드가 나타난다.

<표35> 6구간 주요 키워드 결합 빈도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TF)	순위	단어 1	단어 2	빈도(TF)
1	원자력	발전소	23	11	부동산	위기	6
2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20	12	수출	통제	5
3	일본	수산물	16	13	수산물	수입금지	5
4	반일	감정	13	14	경제	둔화	5
5	해양	방류	12	15	소금	사재기	5
6	수산물	수입	11	16	제주항	입항	5
7	동북아	박람회	7	17	음악가	정율성	4
8	감정	고조	7	18	항일	운동	4
9	경제	회복	7	19	인지세	인하	4
10	단체관광	크루즈	6	20	불매	운동	3

이 외에도 중국발 크루즈가 제주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하여 '경제-회복', '단체관광-크루즈', '제주항-입항' 등의 결합키워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3) 이슈분석

6구간은 약 1주일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주목된 주요 이슈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이슈, 제주도 크루즈 관광 재개 이슈, 정율성 음악축제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관련 이슈 등이 있다.

<표36> 6구간 주요 이슈 및 토픽확률

토픽1	토픽확률	토픽4	토픽확률	토픽5	토픽확률
일본	0.019	단체관광	0.008	한국	0.008
후쿠시마오염수	0.012	크루즈	0.008	정율성	0.004
방류	0.011	제주	0.007	방문	0.004
수산물	0.009	유커	0.006	자매도시	0.004
정부	0.009	방문	0.005	귀환	0.004
후쿠시마	0.008	일본	0.005		
원자력	0.008	중국인	0.004		
발전소	0.008	사드	0.004		
반일	0.007				
오염수	0.005				

첫 번째 이슈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슈이다.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언론은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을 보도하며, 중국의 여러 수산시장의 모습을 기사에 담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은 중국의 SNS를 중심으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중국에 있는 일본 상품 관련 상점에 항의 전화가 폭주하는 등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중국인의 뿌리 깊은 반일정서를 자극하였다고 보도하며 향후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전망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발 크루즈의 제주항 입항 이슈이다.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태로 인해 중국발 크루즈선이 완전히 끊긴 후 6년 5개월 만에 중국 단체관광객을 태운 크루즈 상하이 블루드림스타호가 2023년 8월 31일 제주항에 입항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본디 일본 나가사키에 입항을 계획했던 크루즈가 기상악화를 이유로 제주항에 입항하게 되면서, 기항지의 변경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반일감정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는 기사도 보도되었다.

세 번째 이슈는 정율성과 관련된 이슈이다. 한국 언론은 광주시가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 여야 정치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정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도하였다. 특히,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정율성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국내 양당을 위시로 한 보수의 관점과 진보의 관점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측은 정율성을 공산 침략 부역자로 규정하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이 정율성 우상화 작업이라 비난하였다. 이에 진보적 입장을 보이는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율성을 항일운동가이자 음악가라 이야기하며, 그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적 행태이며, 호남과 중국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감정을 부추기는 행태라 비판하였다. 언론 분석 결과 정율성 관련 이슈는 홍범도 흉상 이전 이슈와 맞물려, 국내 정치계의 이념전쟁의 소재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감성분석

6구간 동안 국내 언론의 기사에 나타나는 감정어의 긍·부정 감성비율은 긍정비율이 57.63%, 부정비율이 42.37%로, 앞 구간보다 긍정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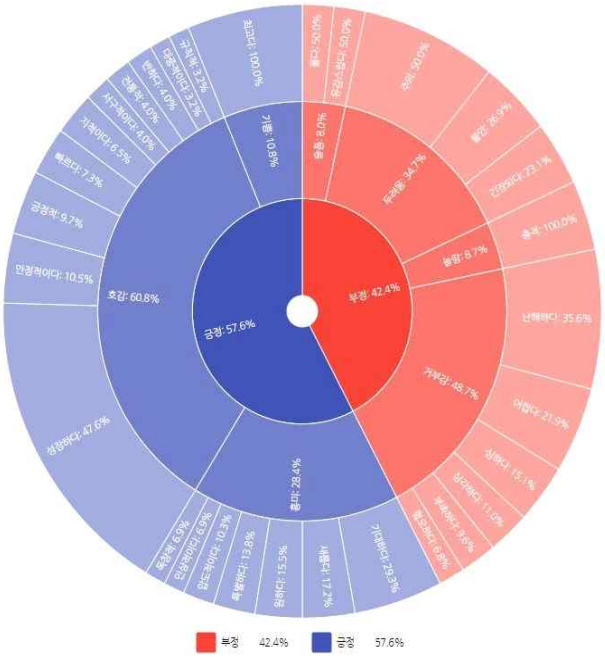
난다.

<표37> 6구간 긍부정 감성 비율

구분	빈도(건)	비율(%)
긍정	204	57.63
부정	150	42.37
합계	354	100.00

6구간의 주요 감성 어휘 중에서, 긍정감성 57.63%를 100로 환산 시, 가장 높은 주요 세부감성은 '호감'으로 총 60.8%를 차지하며, '흥미 28.4%', '기쁨 10.8%'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부정감성은 총 42.37%로, 이를 100%로 환산하면 '거부감'이 48.7%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뒤를 이어 '두려움'이 34.7%를 차지하였으며, '놀람(8.7%)', '슬픔(8.0%)'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14> 6구간 세부감정 및 감성어 비율



4구간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긍정 감성 세부 감성 및 감정 어휘는 '호감-성장하다'이다. 그 뒤를 이어 '기쁨-최고다', '흥미-기대하다', '호감-안정적이다', '호감-긍정적', '흥미-새롭다' 등이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크루즈의 제주항 입항 이슈와 함께 '흥미-기대하다', '호감-긍정적', '흥미-원하다', '호감-빠르다', '흥미-특별하다' 등의 감정어

휘가 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38> 6구간 긍정감성 세부감성 및 감정어휘의 빈도

	순위	세부감성	감정어휘	빈도(건)
긍정	1	호감(good feeling)	성장하다	59
	2	기쁨(joy)	최고다	22
	3	흥미(interest)	기대하다	17
	4	호감(good feeling)	안정적이다	13
	5	호감(good feeling)	긍정적	12
	6	흥미(interest)	새롭다	10
	7	흥미(interest)	원하다	9
	8	호감(good feeling)	빠르다	9
	9	흥미(interest)	특별하다	8
	10	호감(good feeling)	지적이다	8

부정감성어의 경우, ‘두려움-주의’, ‘거부감-난해하다’, ‘거부감-어렵다’, ‘두려움-불안’, ‘놀람-충격’, ‘두려움-긴장되다’, ‘거부감-심하다’ 등이 나타난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두려움-주의’, ‘두려움-불안’, ‘놀람-충격’, ‘두려움-긴장’, ‘거부감-심하다’, ‘슬픔-울다’ 등의 감정어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39> 6구간 부정감성 세부감성 및 감정어휘의 빈도

	순위	세부감성	감정 어휘	빈도(건)
부정	1	두려움(fear)	주의	26
	2	거부감(disgust)	난해하다	26
	3	거부감(disgust)	어렵다	16
	4	두려움(fear)	불안	14
	5	놀람(fright)	충격	13
	6	두려움(fear)	긴장되다	12
	7	거부감(disgust)	심하다	11
	8	거부감(disgust)	심각하다	8
	9	거부감(disgust)	부족하다	7
	10	슬픔(sadness)	울다	6

4.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2023년 8월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 국내 6개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중국 관련 뉴스 보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주요 키워드, 이슈 및 감정어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언론이 중국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보도한 이슈와 그에 나타난 한국 언론의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요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각 구간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홍콩, 일본, 대만, 북한, 러시아 등 주요 관계국의 국가명이 상위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보도되는 중국 관련 기사가 주요 관계국과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보도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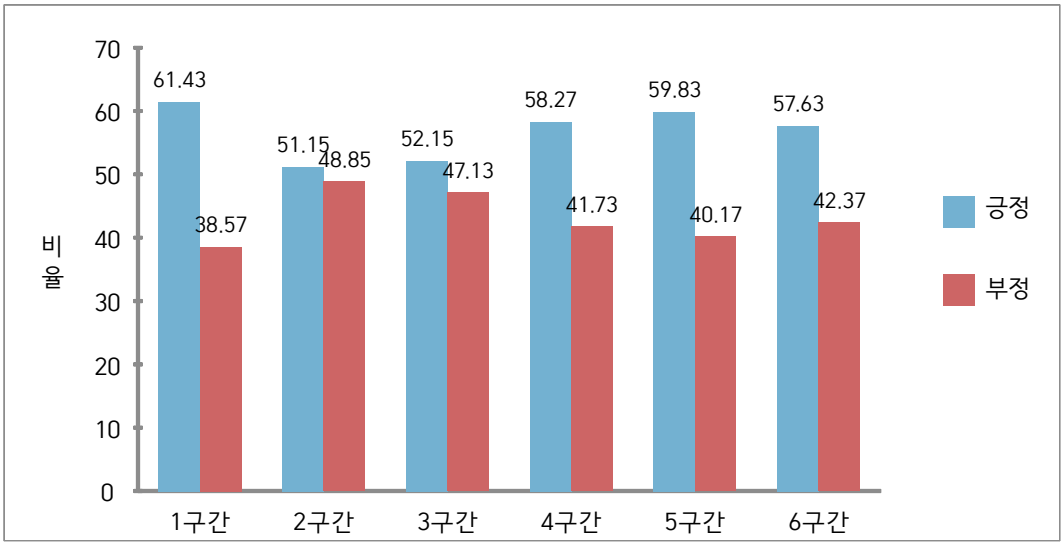
둘째, 각 구간마다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와 결합키워드는 각 구간별 주요 이슈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슈의 중심도 및 보도 빈도에 따라 키워드의의 출현 빈도 및 결합 빈도가 결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결합빈도의 경우 이슈의 중심도가 높아지고 후속보도가 많아질수록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이슈 분석을 통해 한국 언론이 중국과 관련하여 주목한 이슈를 살펴본 결과, 각 구간별로 주요 이슈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1구간의 경우 미중 간 무역전쟁과 1단계 무역합의, 중국의 기술 발전. 대만의 총통선거, 홍콩시위 등의 이슈를 주목하였고, 2구간은 미중 무역갈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의 영유권 갈등, 미국의 대선, 중국과 인도의 군사적 마찰, BTS 발언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졌다. 특기할만한 점은 2구간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이슈에 코로나19가 높은 토픽확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3구간의 주요 이슈는 중국의 백신 개발, 중국의 전력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 관련 불법 유통, 미국 대선 관련 이슈이며, 4구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 전기차 배터리, 고구려 역사 왜곡, 리잔수의 방한 등이 주요 이수로 나타난다. 그리고 5구간의 주요 이슈는 중국과 한국 간의 비자 발급 중단 이슈,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제재 이슈,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관련된 이슈, 중국발 황사 관련 이슈 등이 있었으며, 6구간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이슈, 제주도 크루즈 관광 재개 이슈, 정율성 음악축제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관련 이슈 등이 주목되었다.

넷째, 각 구간별로 실시한 감정분석 결과 각 구간별 긍정비율에 대한 평균은 56.74%로 나타났으며, 부정비율의 평균인 43.14%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15> 전 구간 긍.부정 감성비율



위의 그래프는 각 구간별 감정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구간별 긍정비율과 부정비율을 보여준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국내 언론의 보도 경향과 현재 한국 내에 만연한 중국혐오 감정과의 상관관계는 적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국과 관련하여 한국 언론이 주목한 이슈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본 연구이다. 사실, 그동안 한국이 중국을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추상적인 분석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객관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중국 관련 담론과 이슈를 살펴보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편폭의 한계로 인해 언론사 성향에 따른 비교분석 연구, 코로나 전후 이슈의 비교분석 연구 등은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계기로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언론사의 성향에 따른 주요 이슈, 감정어 등의 비교 분석 연구, 코로나 전과 후의 이슈 비교연구가 지속되길 바라며, 연구 범위를 넓혀 SNS 텍스트의 감성분석 결과와 중국혐오 감정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논문>

김수경,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反中) 현상」, 『다문화와 평화』, 14권 1호, 다문화 평화연구소, 2020.

Michael Worobey, "Dissecting the early COVID-19 cases in Wuhan", *Science*, Vol.374, 2021.

<웹사이트>

https://www.textom.co.kr/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COVID-19, 媒体分析, 文本挖掘, 主题分析, 情感词汇分析
	영문	COVID-19, Media analysis, Text mining, Issue analysis, Sentiment lexicon analysis

Analysis of South Korean Media Discourse and Issues Regarding China During the COVID-19 Period

Lee Ga-Young

This research conducted text mining analysis on news coverage related to China in six major South Korean newspapers, including Chosun Ilbo, Dong-a Ilbo, Hankyoreh, Kyunghyang Shinmun, Hankook Ilbo, and Yonhap News, from December 2019 when COVID-19 emerged to August 2023 when there were adjustments in the classification of COVID-19 as an infectious disease. The analysis included examining major keywords, keyword combination analysis, issue analysis, and sentiment lexicon analysi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key issues prominently covered by South Korean media in relation to China and the perspectives of the South Korean media on these issues.

This paper seeks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1. During the COVID-19 period (from December 3, 2019, to August 23, 2023), what were the key issues that South Korean media focused on in relation to China? 2. For each of the specified time periods, how did South Korean media construct discourse regarding China in the context of COVID-19? 3. After the emergence of COVID-19, what perspective did South Korean media adopt when looking at China, and what was the image of China portrayed in the media? 4. Is there a correlation between domestic media coverage of China and the prevalence of anti-China sentiments in South Korea?

저 자	이가영 / 李嘉英 / Lee Ga-Young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11.09.	심 사 일	2023.12.09.	게재확정일	2023.12.19.